

048812

<여성의 눈으로 본 정치자금>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지금 불법정치자금 문제로 온 나라가 뒤 흔들리고 있다. 사법권에서는 지난 대선자금 수사를 전면 확대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 재계와 정계는 술렁이고 있는가 하면 내년 총선을 돈 적게 쓰고 깨끗하게 치려야 할 정치권은 그에 대비하기보다는 이것을 정쟁꺼리로 삼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1995년부터 우리나라의 여성계에서는 정치분야에서의 누적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할당제를 주장해 오던 바 2004년 총선에서는 100명의 여성이 국회에 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여성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하여 현재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비례직 50%와 선출직 3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정당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 70개 조사대상 국가 중 63위를 기록하고 있는 여성의 정치 참여 등을 평가한 우리나라의 여성권한 척도의 부끄러운 기록도 갱신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거액의 돈을 쓸 수 밖에 없는 현행 선거제도와 교도소의 담장위를 걷게한다는 정치자금법을 그대로 둔 채 개혁의 주역이 될 여성을 포함한 새로운 인재들의 정계진출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생각하면 과거의 잘못을 따져서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앞으로 6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2004총선에서 지난 날의 일그러진 관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늘의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하는 한편 돈을 적게 쓰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가 정착하면 정치자금 모금의 원칙은 소액다수주의가 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이에 상응하게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공영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질이 검증되는 한 돈이 없어도 정계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사회공인에 대한 엄격한 윤리강령이 준수되고 있어서 정치인의 도덕성을 지켜내고 있는 영국의 돈 안드는 정치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의 흐름에서 보면 비록 합법적이라고 하나 순수성

음향임이 2이4 잡속리츠
 에는 결함이 있다는데 누구도 반론을 펴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력이 강한
 편으로 정치자금은 물리적 마련이다. 원칙고수에 강한 여성정치인에게 정
 치후원금이 인색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인여성이 정계
 진출을 쉽게 결단할 수 없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여성정치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여성계의 특단의 전략
 이 필요하다. 정계진출을 독려하고 정치권과 연계해서 공천을 받도록 하
 고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도 여성계가 나서서 해주어야 한다.

129 2004년 총선을 위해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발족되어 여성 1백인
 을 국회에 보내는 캠페인 전개가 바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
 정치인을 위한 정치자금 모금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계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에는 돈이 없어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에밀리>라는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 기구는 지원
 을 원하는 여성들을 심사한 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다. 이들 후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입회비를 내고 회원이 되며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후보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는 많은 적은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기 돈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계에 진입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정치
 꾼'들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정치권이 되지 않기 위한 여성네트워크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과제는 자명해진다. 그 과제를 회피하고 2004총선을
 맞이할 수는 없다.

여성의 눈으로 본 정치자금

박성숙 한양대학교 이화장

지금 불법정치자금문제로 온 나라가 뒤도돌리고 있다. 새삼스럽게도 지난 대선자금 수수를 전연 확대 하려고 유류세를 놓고 있어서 재계와 정계는 술렁이고 있는 한편 내연 홍선을 도둑게 쓰고 깨끗하게 치루어야 할 정치권은 그 대타에 보라는 이것을 정쟁거리로 삼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서 전방을 어둡게 하고 있다.

1995년 부터 우리나라의 여성계에서는 정치분야에서의 누적된 성차별을 해소 하기 위해 여성활동제를 주장해 온데 반 2004년 총선에서는 100명의 여성이 국회에 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현장정치로써의 힘을 갖춘 여성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하여 현재 국민들로 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켜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현재 국회에 진출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비례직 50%와 선출직 3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면 정당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는 일도 다름. 그렇지 않으면 70개 정당대상 국가공 63위를 기록하고 있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여성친화적국도의 부족함을 기록도 갱신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개혁의 뜻을 실수없이 있는 현행 선거제도로 고도소의 답답함을 느끼는 정치자금법을 그대로 두면 개혁의 주역이 될 여성을 포함한 새로운 인사들의 정계 진출이 가능한지 하는 것이다.

그러면에서 생각하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여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것은 앞으로 6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2004 총선에서 지난날의 일그러진 관행을 반목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늘의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하는 하등한 돈을 적게 쓰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에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가 정착되면 정치자금 모금의 원칙은 소액다수 주의가 될수 있으며 국고보조금도 이에 상응하게 지급되는것이 바람직 하다.

선거공영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국회에 진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질이 검증되는 한 돈이 없어도 정계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사회공인에 대한 엄격한 윤리강령이 준수되고 있어서 정치인의 도덕성을 지켜내고 있는 양자의 토양도 정치에서 좋은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의 흐름에서 보면 비록 참정권이라고 해도 승수상에는 결함이 있는데 부수도 반론을 던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이 강한 파도를 정치자금으로 물타게 되리다. 원칙과수에 강한 여성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이 인정하는것이 더욱 입증되고 있다. 이밖에도 개인여성이 정계 진출을 쉽게 할수 있게 하는 다양한 방안이 여성정치인의 반목을 받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여성계의 후진의 전력이 필요하다. 정계진출을 독려하고 정치권리연계해서 공헌을 받도록 하고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도 여성계로 나서서 해주어야 한다.

2004 총선을 위해 <원오 36리 여성네트워크>가 발족되어 여성 100인을
국회에 보내는 캠페인 전거를 벌인 2기등을 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정치인을
위한 정치자금모집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계끼리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에도 돈이 없는데 선거운동을 하게 못하는 여성들을 재능강으로 지원하기
위해 <에멀리>라는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기주는 지원을 원하는 여성들을
심사한후 후보로 영감을 주겠다고 한다. 이들 후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협회
비록 내고 회원이 되어야 자에게 지원하고 싶은 후보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돈, 적돈

정치는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기돈을 갖고도 정치할수 있는 여성만이 정계에
진입하거나 정치후보권을 주지않을수 있는 '정치조'들이 있다. 남들두 있는 정치
권이 되지 않기 위한 여성네트워크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리제는 2년마다
전개. 2리제를 회회하고 2004 총선을 맞이할수는 없다.